

2024년 7월호(제 235호)

# 소중한사람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  
눈물도 참 많이 흘렸다

커다란 강물위에 선다.  
도토티 흐르는 그리움

내 몸에 푸른 지느러미가 생긴다.  
아!  
푸른 물고기  
어디든, 누구든 만날 수 있다.  
강물에 뛰어든다.

강물 속  
많은 물고기들이  
조잘대며 이렇게 말한다.

“너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너의 전 생애가 되듯이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라.”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종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http://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울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healing.com](http://www.pphhealing.com)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 소중한사람들 쉼터(보금자리)의 시작

암환자로부터 들려오는 아픔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게 되는 저는 제 안에서 부터 다시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환우는 말기암 환우로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소중한사람들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환우가 영양제를 맞고 싶어 했을 때 저는 청평 시내로 나가 병원을 찾으려 말기 암환우에게 영양제 수액을 놓아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위험해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환우는 자신이 다녔던 대전의 병원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제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산골짜기에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보내 주세요. 자신을 희생하며 병원을 시작할 분이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니 찾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헌신된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원장님은 인천의 자신의 병원을 닫고 와서 암환우들을 위해 헌신해 주셨고, 부원장님은 한 번도 월급조차 받은 적이 없이 오직 희생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도 밤낮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환우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팀이 형성되어 환우들의 어려움을 지금까지 도와 왔습니다.

지금으로 보면(2024년) 2년 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환우 중 한 청년 자매가 말기암환우로 서울 아산병원에 다녔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시기가였기 때문에 암환우들이 병원에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통 암환우들은 열이 나기도 하는데, 이 자매는 열이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 결과가 문제가 없었음에도 병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이 자매를 택시에 태워 여러 요양병원을 찾아다녔고 결국 모텔에서 재워야 했습니다.

이 자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방치된 채로, 병원과 요양병원 사이를 떠돌며 마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모텔에서 보내야 했던 밤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립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 속에서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던 그녀의 절망스러움을 제 마음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아산병원 근처에 환우들이 머물 수 있는 거점과 같은 곳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자활 쉼터가 암환우 쉼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노숙인 40명이 머물던 곳이 암환우의 쾌적한 쉼을 위해 여성 10명, 남성 4명이 머물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사실 저희 어머니의 큰 아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10년간 온 힘을 기울여 재판한 것이 거의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면서 쉼터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헌신과 아픔을 통해 서울역 센터가 리모델링되고 암환우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이 서울에서 머물 곳이 없어 두려워하는 암환우들에게 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헌신이 쉼터의 설립으로 이어져 많은 암환우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 큰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암환우들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큰 기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소중한사람들 쉼터 (Shelter) 이용안내

#### 누가 사용 할 수 있나?

1.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
2.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이용했던 분 중에 지내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구든 암환우여야 하고 병원 이용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별히 방사선 치료시에는 방사선 치료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치료하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 각론에 대한 설명

1.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병원에 갈 때에 셔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환우들마다 달라서 돌아오는 셔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쉼터가 시작되면서 돌아올 경우 서울역에서 돌아오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김태희 전도사님과 상의하셔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단, 하루 이틀 서울역에서 머물고 돌아올 수 있으니 먼저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기차로 이전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2. 퇴소했던 분들 중에도 지방에서 서울로 오셨을 경우 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쉼터가 없어서 다른 친인척의 집이나 여관을 전전하셨던 분들께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3. 3일 이상의 장기 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만 치료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하셨을 때에 등록하신 보호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머물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쉼터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와 동일하게 오전11시, 저녁 7시 예배가 드리지며 3층 채플실에서 TV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사용시 비용은 무료이지만 소중한 사람들의 운영을 위해 3층 채플실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십시오. 소중한 사람들의 운영은 많은 인건비와 시설 운영이 들어갑니다. 헌금은 개인의 자발적 마음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서울역에서 드린 것은 서울역 쉼터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글 / 이성일 목사

# Retreat Center (피정) 오픈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가 제 2 Phase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를 열었습니다.

말씀과 자연, 쉼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렘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쉼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 1. 안\*영(5일간)

암이라는 병에 걸리고 보니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쾌적한 숙소와 청정 환경에 들어서자마자 감동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찬송을 따라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 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 2. 김\*령(5일간)

4년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재발과 전이로 큰 수술을 받고 치료받던 중에 유정숙 사모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 놀랐고, 식사, 예배, 친절함과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에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 갈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3. 김\*경(5일간)

소중한 사람들에 함께 오려고 했던 환우들과 함께 오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4박5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습니다. 리트릿센터의 방에 들어가 보니 소품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며 또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후원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기약없는 투병 생활의 두려움 속에서 지쳐있을 때 오게 된 이곳의 예배와 기도, 교제와 식사는 제게는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병을 이겨내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 4. 홍\*희(5일간)

교회 집사님 소개로 알게 된 리트릿센터에 입소하면서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함께 룸메이트로 있게 된 권사님도 좋은 분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소홀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지내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조속히 회복되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5. 원\*분(5일간)

소중한 사람들에 오게 되니 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서 환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하루 일과를 경험하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부분은 하루 두 번의 예배와 중보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가 새로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꿈꾸던 작은 소망이 확대되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 6. 이\*연(5일간)

저는 2016년부터 긴 투병과 세 번의 수술로 인해 병과 싸우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전이는 저의 육신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기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소사함을 알게 되었고 병과 힘겹게 살았던 저에 대한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첫날 이곳에 도착했던 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속에서 주님의 응성이 저를 위로해주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충전되었고 용기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 7. 김\*순(3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유방암 수술로 다 나왔지만, 교회 장로님이 폐암4기로 힘들어 하셔서 리트릿센터에 함께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오게 되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숙소, 식사, 예배, 주변 환경, 공기, 중보기도, 이 모든 것이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곳이 베다스다 언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천국과 같이 주님과 교동하며 지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 8. 정\*자(6일간)

저는 난소암 4기로 10년 동안 복부를 세 번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30년 이상의 항암을 하면서 영육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리트릿센터에서의 매일 아침, 저녁 예배를 통해서 더욱 더 생명의 주관자 이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맛있는 음식과 예배, 그리고 산책하면서 꼭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암 환우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 9. 유\*이(6일간)

저는 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렵게 입소하게 된 리트릿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왜 건강을 잃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10. 안\*순(6일간)

지인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과연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남편의 반대에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소사함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방을 배정받고 문을 여는 순간 새하얀 침대가 나를 맞아 주었고 넓은 거실과 주방도 깨끗해서 이곳이 무료로 운영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야 안심을 하게 되었고 중보기도시간에 나보다 더 위중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에 내 기도보다 위중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나?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씩 예배를 드린 적도 없지만 인지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한없이 흘렸습니다. 식사는 얼마나 정성껏 차려 주시는지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곳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은혜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소중한 맘 사역도 소중한사람들 사역중 하나입니다.’

(소중한맘 5기 후기)

- 황\*연 -

1. 소중한 맘 모임을 하며 깊게 와 닿았던 부분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라는 것이 깊게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때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기도 없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아이들을 양육하고 내 자신이 인내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성경을 읽으며 아이를 양육 하는 것에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소중한 맘 모임이 삶에 미친 영향

아이를 조금 더 공홀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전에는 버릇이 없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소중한 맘을 듣고 나서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쉽게 바뀌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양육은 끊임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서, 그리고 아이가 떼를 심하게 쓸 때 내가 잘못 해서 그런가보다 싶어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다음부터 잘하자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가르쳐주신 것이 참 좋았습니다.

- 권\*영 -

1. 소중한 맘 모임을 하며 깊게 와 닿았던 부분

자녀의 행동, 즉 표면적인 부분이 아닌 자녀의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 자녀를 '잃어버린 자'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엄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지, 자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인지.. 돌아보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깊이 와 닿았습니다.

2. 소중한 맘 모임이 삶에 미친 영향

사모님과 매주 줌으로하는 이 수업이, 정말 주옥같이 귀한 내용들이라 너무 좋아서 저는 두 번째로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도 또 새롭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삶에 미친 영향은 제 안에 아이들을 향해 쏟아놓았던 분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화내고 싶은 순간들에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일들이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일이 예전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지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수고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정성들여 키웠을 때 나중에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할지 소망이 됩니다.

- 김\*나 -

1. 소중한 맘 모임을 하며 깊게 와 닿았던 부분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방식과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훈련하여야 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2. 소중한 맘 모임이 삶에 미친 영향

말씀을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적용하는 관점에 변화가 있었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래 -

1. 소중한 맘 모임을 하며 깊게 와 닿았던 부분

부모의 핵심 미션이 삶의 모든 일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처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어머니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자녀들과 은혜를 나누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잘했을 때 엄마의 인정과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연약한 부분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나를 엄마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2. 소중한 맘 모임이 삶에 미친 영향

말씀과 기도로 에너지를 얻고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이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모습처럼 똑같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소리 내어 나누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소리 내서 기도했더니 아이도 똑같이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말하며 함께 기뻐하는 행복한 시간이 늘었습니다.

10주의 시간을 온전히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몰랐었는데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있었어요. 이런 귀한 깨달음을 많은 분들이 배웠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빨리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귀한 수업은 돈을 내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ㅠ) 긴 시간동안 지혜를 나눠주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모임을 권유해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배운 것 잊지 않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키우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 김\*리 -

1. 소중한 맘 모임을 하며 깊게 와 닿았던 부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그 당시의 행동이 그럴 수 있었는가 깨닫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다.

2. 소중한 맘 모임이 삶에 미친 영향

겸손해지는 마음가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접하지 않을 때 섭섭하기 보다는 그분을 먼저 대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훈육의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며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 한\*리 -

1. 소중한 맘 모임을 하며 깊게 와 닿았던 부분

구체적인 예시 상황들을 함께 생각해보며 나눌 수 있어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양육과 훈육에 앞서 나와 아이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를 살펴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바른 양육과 인도를 하기 위해 늘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2. 소중한 맘 모임이 삶에 미친 영향

모임 전에는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매일 정신없는 삶의 반복에 항상 피곤했습니다. 학교에 막 입학한 딸의 교육 및 에너지 넘치는 토들러(Toddler) 아들의 양육과 관련해 잘하고 있는지 은근히 불안했습니다. 분주한 일상의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모임을 가지며 제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이자 엄마인 제가 마음이 더 편안해지니 저희 가족의 분위기가 더 화평해진 것 같습니다. 사모했던 모임이 마쳐 아쉬웠지만 그동안 배운 것들을 계속 생각하며 앞으로 주님 은혜로 평안하고 기쁘게 자녀 양육하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 -

1. 소중한 맘 모임을 하며 깊게 와 닿았던 부분

아기를 보는 시각이 달라야한다는 것입니다. 귀엽고 보호해 줘야할 내 자식이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족한 부분뿐만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부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임을 인정하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말로도 이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좀 더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 예제들,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배웠지만 제가 깊게 와 닿았던 이 부분이 기본으로 뿌리를 잘 내려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소중한 맘 모임이 삶에 미친 영향

저희 아기가 아직 1살 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삶에 큰 영향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과정을 들어서 너무 기뻐합니다. 어릴 때부터 소중한 맘에서 배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기독교의 관점에서 아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 소중한 맘 7기 과정에 함께할 분을 모집합니다

- 말씀을 양육에 적용하고싶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모르겠나요?  
-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싶나요?  
그럼,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양육해 가야 합니다.  
양육의 모든 답은 바로 말씀안에 있습니다  
그 답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이예요.  
저와 함께 답을 찾는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길 원합니다

- ♣ 시작일 : 2024. 9.5, 9.6(목요일반, 금요일반) am 10시
- ♣ 과 정 : 10주과정
- ♣ 자 격 :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누구나,  
기독교적 양육방법을 알고싶어하는 누구나
- ♣ 비 용 : 무료
- ♣ 방 법 :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과정
- ♣ 신 청 : 카카오톡 anwiro0101 / 010.2125.9106
- ♣ 인 도 자 : '아가야 우리 잘해보자' 저자,  
소중한사람들교회(합동측) 사모 박선인

# 2024년 6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 ● 확장 헌금 ●

강정운(20,000) 구현주(1,000,000) 김승만(1,000,000) 김연자(500,000) 박춘자(1,000,000) 변영미(1,000,000) 서금자(500,000)  
이윤주(5,000,000) 임맹자(1,000,000) 추연국(1,000,000) 추연소(1,000,000) 추연용(1,000,000)

## ● 목적헌금 ●

김계숙(1,000,000) 조은래(6,788,696)

## ● 천사헌금 ●

단선화(1,000,000) 권아라(1,000,000) 김형민(1,000,000) 김서연(1,000,000) 무명(1,000,000) 김세림(1,000,000) 정경희(1,000,000)

## ● 십일조 ●

김병식(200,000) 노은순권사님가족(285,788) 박봉희(240,000) 박용범(460,000) 배운경(60,000) 변영미(500,000)  
서금자(50,000) 성혜숙(200,000) 유정희(200,000) 이경애(100,000) 이성일(300,000) 이성일-서적(1,638,400) 장은미(62,000)  
최영자(130,000) 황우진(140,000)

## ● 감사헌금 ●

강금숙(80,000) 강명석,인정민(60,000) 강명혜(320,000) 강인석(50,000) 고정형(10,000) 광효정(540,000) 구남진(100,000)  
구민정(20,000) 구현주(100,000) 권오성(150,000) 김계숙(300,000) 김덕용(100,000) 김도겸(40,000) 김명석(50,000)  
김미성(20,000) 김미영(50,000) 김미정(80,000) 김민영(50,000) 김병식(900,000) 김보영(50,000) 김선아(50,000)  
김수진(500,000) 김연자(210,000) 김영관(100,000) 김유미(50,000) 김윤숙(50,000) 김은미(100,000) 김은숙(20,000)  
김정규(50,000) 김태린(100,000) 김태영(100,000) 김태희(100,000) 김현숙(20,000) 김혜림,김운재(100,000) 김혜영(50,000)  
김혜은(20,000) 나오미(100,000) 류병완(100,000) 문경섭(10,000) 박광숙(100,000) 박선인(112,444) 박정숙(570,000)  
박지영(200,000) 박철민(200,000) 박춘자(400,000) 배운경(200,000) 백현미(20,000) 변영미(100,000) 변현진(30,000)  
서금자(330,000) 서미순(110,000) 서병임(80,000) 소한태(10,000) 손은선(1,900,000) 손준익(200,000) 송기승(30,000)  
송병희(20,000) 송혜순(100,000) 신은철(200,000) 암환우회헌금센터(230,000) 양경임(50,000) 양석원,이유진(100,000) 엄영란(100,000)  
염애석(10,000) 예배감사(50,000) 오홍석(100,000) 왕규현(800,000) 원유화(50,000) 유명희(190,000) 유재기(50,000)  
유정숙(200,000) 유정옥(500,000) 유정희(680,000) 이경애(150,000) 이돈철(230,000) 이명승(30,000) 이병숙(100,000)  
이복희(50,000) 이부자(250,000) 이상길(20,000) 이상모(100,000) 이상숙(20,000) 이성일(350,000) 이양복(10,000)  
이영훈(100,000) 이윤주(120,000) 이인순님가족(500,000) 이정호(30,000) 이창원(200,000) 이해영(200,000) 이해옥(300,000)  
이화숙(200,000) 임경남(10,000) 임귀례(50,000) 임동규(500,000) 임예달(500,000) 장은미(250,000) 장항자(100,000)  
전대진(50,000) 전은유(50,000) 전정옥(300,000) 정동익(30,000) 정상해(100,000) 정재운(50,000) 정현명(500,000)  
조귀옥(50,000) 조옥선(20,000) 조정덕(100,000) 최경순(100,000) 최소정(50,000) 최영자(120,000) 최영희(10,000)  
최은숙(20,000) 최혜령(250,000) 추희정(50,000) 하미애(330,000) 한창식(300,000) 허인숙(20,000) 현성원(50,000)  
홍지희(100,000) 황명자(50,000) 황보순(100,000) 황서영(100,000) 황수진(130,000) 황순산(50,000) 황우진(20,000)

## ● 기관후원헌금 ●

가락제일교회(100,000) 계영산업(100,000) 국회기도회(5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주)토탈이앤씨(100,000)

## ● CMS헌금 ●

공은영(30,000) 김명화(30,000) 김민정(20,000) 김영신(30,000) 김윤집(30,000) 김유진(10,000) 김지영(10,000)  
김태희(20,000) 김혜원(30,000) 단선화(50,000) 문옥자(20,000) 민현정(10,000) 박경미(20,000) 박상준(30,000)  
박완준(5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손미경(50,000) 송연숙(50,000) 양운정(100,000) 유부흥(100,000)  
윤화숙(30,000) 이금순(50,000) 이다연(10,000) 이상림(100,000) 이원인(150,000) 이주현(10,000) 이준영(10,000)  
이찬선(5,000) 이해경(50,000) 임동규(20,000) 임성숙(30,000) 장미경(20,000) 장승아(10,000) 정예은(5,000)  
정의영(30,000) 조남남(20,000) 진성권(50,000) 최은주(10,000) 하정숙(20,000) 한명희(30,000) 황지훈(100,000)  
AhnAnna(100,000)

# 청평힐링센터 2024년 6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7,788,696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172,601
천사헌금	7,0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713,008
십일조	4,566,188	식자재구입비	12,327,446
감사헌금	21,042,444	전기요금	3,261,700
CMS헌금	1,630,000	가스요금	648,900
		화재보험료	1,200,000
		병원대여금	16,000,000
		CMS사용료	66,000
		KT요금	81,400
		비품구입비(소모품)	1,903,350
		공사비 및 집기구입	3,897,410
		안전점검비	419,000
		평가 및 세금	154,000
		급여인건비	16,891,360
		사회보장보험비	2,080,050
		우편발송비 및 홈페이지	465,640
금월 수입 합계	42,027,328	지출 총액	61,281,865
전월 이월금	269,265		
차용금	20,000,000		
총 수입 합계	62,269,593	금월 잔액	1,014,728

##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 정진산, 김효선(2,000,000) 김나형(1,000,000) 김혜숙(10,000,000) 유정옥(10,000,000)  
2월 : 도주은(1,000,000) 박상준(1,000,000) 박진미(3,500,000) 이성일(10,100,000) 정일만(2,000,000)  
3월 : 강금내(1,000,000) 김명옥(1,000,000) 김연자(1,000,000) 김옥겸(2,000,000) 무명(100,000) 정현명(5,000,000) 하지인(1,000,000)  
4월 : 박상준(1,000,000) 장미숙(500,000)  
5월 : 김계숙(1,000,000) 강정운(40,000) 김연자(1,000,000) 김태희(300,000) 장미숙(500,000) 장춘순(10,000,000) 홍지희(200,000)  
6월 : 강정운(20,000) 구현주(1,000,000) 김승만(1,000,000) 김연자(500,000) 박춘자(1,000,000) 변영미(1,000,000) 서금자(500,000) 이윤주(5,000,000) 임맹자(1,000,000) 추연국(1,000,000) 추연소(1,000,000) 추연용(1,000,000)  
\* 6월말 현재 총, 80,260,000만원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 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4년 06월 씨앗헌금 후원 : 김미영,박종인(300,000) 김행심(10,000) 김민자(500,000) 양용술(50,000) 이민석(10,000) 이상숙(20,000)  
2024년 06월, 총 5명의 환우에게 3,259,300원을 병원비로 지원하여 환우들이 치료비 부담없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쉼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역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6월 가입자 명단 (7명)

452. 단선화 453. 권아라 454. 김형민 455. 김서연 456. 무명 457. 김세림 458. 정경희

###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옥	2. 최미경	3. 최영자	4. 유재선	5. 이명구	6. 김수영	7. 설충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단혜봉	11. 박철중	12. 정동영
13. 조현선	14. 정경석	15. 이문희	16. 박종배	17. 이충성	18. 김갑희	19. 차운옥	20. 성기빈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재범	24. 박순화
25. 임광래	26. 한정택	27. 이성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광수	31. 김덕상	32. 윤철현	33. 전동화	34. 이혜란	35. 전미리	36. 김영진
37. 임승택	38. 장응훈	39. 이춘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허상익	43. 송명옥	44. 최법락	45. 정수영	46. 정지현	47. 문철자	48. 장한중
49. 정해강	50. 최숙자	51. 윤 안	52. 최법락	53. 최유은	54. 최예은	55. 박정애	56. 정동준	57. 손명옥	58. 권경희	59. 사재신	60. (취)하기
61. 이원영	62. 심 형	63. 이상수	64. 박해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선미	68. 김영관	69. 천우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종권	74. 정동영	75. 김양숙	76. 이주열	77. 변현명	78. 배경하	79. 최수연	80. 박지현	81. 이정은	82. 이정은	83. 산성란	84. 정훈기
85. 정화창	86. 정예은	87. 박효정	88. 허명중	89. 김미연	90. 신형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주성	94. 김갑희	95. 박철중	96. 홍명주
97. 김현숙	98. 무 명	99. 유성진	100. 성복희	101. 권홍봉	102. 황보순	103. 이화영	104. 황정아	105. 황현동	106. 민상태	107. 김현숙	108. 고금진
109. 김유연	110. 계영산업	111. 그레이스 한	112. 아이린 김	113. 이향순	114. 이등주	115. 안서영	116. 도문식	117. 김명성	118. 한운희	119. 유성진	120. 권봉도
121. 김현숙	122. 정상희	123. 박유민	124. 이현나	125. 이용옥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미영	129. 조영석	130. 박차련	131. 김연희	132. 박순화
133. 안정순	134. 김태연	135. 박해숙	136. 양수진	137. 심재록	138. 김현숙	139. 오봉자	140. 이태종	141. 김다비다	142. 전차아	143. 조혜숙	144. 이방훈
145. 박해정	146. 민안나	147. 이금형	148. 윤희진	149. 윤은주	150. 정명희	151. 청평힐링	152. 김희연	153. 안정희	154. 김영숙	155. 문예은	156. 임수미
157. 고영복	158. 김미희	159. 김사라	160. 박준영	161. 박효숙	162. 이석우	163. 이순주	164. 이엘리	165. 이예슬	166. 이재용	167. 이종인	168. 정동영
169. 김필란	170. 유선정	171. 이강순	172. 황옥남	173. 김희순	174. 이원경	175. 박경근	176. 김진임	177. 신진경	178. 김 영	179. 이든구	180. 문종만
181. 강인숙	182. 오정민	183. 문지연	184. 문지연	185. 이다정	186. 이등주	187. 송희중	188. 이하운	189. 정운호	190. 김순애	191. 인종복	192. 이명화
193. 유광현	194. 이등구	195. 이용림	196. 안성훈	197. 박은순	198. 이영숙	199. 윤대요	200. 최금련	201. 김호년	202. 김혜연	203. 장승아	204. 정영신
205. 박영대	206. 양옥경	207. 오재원	208. H	209. 백성운	210. 홍지윤	211. 이희숙	212. 권은미	213. 무명	214. 황산찬	215. 박미행	216. 유민성
217. 우미아미슈사	218. 이은주	219. 백성운	220. 도영화	221. 박순화	222. 이시은	223. 정호진	224. 김순정	225. 김옥연	226. 윤채원	227. 원적외선원재료	
228. 김예송	229. 김수현	230. 장민숙	231. 김숙희	232. 남원학	233. 남지영	234. 남혜원	235. 김정자	236. 박순순	237. 오준석	238. 노은순	239. 이성혜
240. 최해원	241. 임계숙	242. 이승재	243. 연구홍	244. 김선경	245. 김선영	246. 손태정	247. 홍수연	248. 이인선	249. 정혜실	250. 한종석	251. 한희숙
252. 김애원	253. 박정희	254. 한영숙	255. 이기열	256. 정은영	257. 이우경	258. 이우경	259. 최영훈	260. 김미옥	261. 김동수	262. 조자영	263. 이선
264. 최영애	265. 장승아	266. 이현미	267. 이주영	268. 이은주	269. 최해진	270. 손현이	271. 송문희	272. 윤용주	273. 변영록	274. 최영자	275. 김성곤
276. 김동완	277. 김주희	278. 이가경	279. 신현규	280. 이현미	281. 민윤홍	282. 이은주	283. 민노엘	284. 이주영	285. 김승정	286. 홍부네	287. 조병호
288. 정영자	289. 이우승	290. 조아나	291. 민현정	292. 박유진	293. 윤주동	294. 장승아	295. 조병호	296. 김명희	297. 홍순경	298. 이상림	299. 김무순
300. 양호경	301. 김주형	302. 권외자	303. 정영애	304. 조아나	305. 김옥경	306. CHOYEARIN	307. 광진관	308. 공은경로사	309. 권유승	310. 방원	311. 남기혁
312. 김소현	313. 윤종문	314. 박재연	315. 이하리	316. 민요한	317. 최홍서	318. 정복숙	319. 김사진	20. 최봉관	321. 이복순	322. 류승희	323. 김영혜
324. 이상아	325. 750204	326. 김인주	327. 김성규	328. 최혜령	329. 이약신	330. 이경옥	331. 민옥선	332. 정향자	333. 이은경	334. 유성진	335. 이상운
336. 최영애	337. 유지혜	338. 채해순	339. 전성훈	340. 정찬영	341. 김은정	342. 윤은혜	343. 맹은자	344. 정현지	345. 이호은	346. 김진숙	347. 정영신
348. 채지영	349. 양호정	350. 유성진	351. 김영남	352. 유철우	353. 유준오	354. 유현주	355. 윤종옥	356. 최유은	357. 전나라	358. 허창만	359. 한송희
360. 도영화	361. 서정민	362. 정영신	363. 오창홍	364. 정찬영	365. 권중준	366. 박지영	367. 장춘순	368. 강신공	369. 전영신	370. 송병석	371. 장향자
372. 정진숙	373. 최혜령	374. 서혜원	375. 노아범주	376. 강인석	377. 최영숙	378. (취)토틸이앤씨	379. 후원금	380. 강민욱	381. 강진욱	382. 강현욱	383. 임지영
384. 빛과소금교회	385. 정영신	387. 김태희	388. 박성준	389. 유동호	390. 박병희	391. 박진미	392. 심규진	393. 김계석(오크성기대)	394. 이문섭	395. 서태원	
396. 이정현	397. 김수옥	398. 정현영	399. 도영화	400. 김영희	401. 박영록	402. 이희숙	403. 김미자	404. 김순하	405. 이병실	406. CULVUZL	407. 강연구
408. 강정화	409. 이경재	410. 민수희	411. 조규철	412. 윤경일	413. 오형석	414. 이종삼	415. 이지혜	416. 이현순	418. 김영래	419. 조미경	420. 유문재
421. 김윤순	422. 박경철	423. 황우건	424. 서종열	425. 신철수	426. 이성희	427. 박수정	428. 김숙희	429. 정영신	430. 강금내	431. 장은미	432. 박춘자
433. 박경철	434. 임주찬	435. 최승순	436. 김연자	437. 장향자	438. 김계숙	439. 박미순	440. 김연자	441. 구현주	442. 이영섭	443. 이선우	444. 김연자
445. 송미령	446. 김차우	447. 이연주	448. 이금순	449. 서금자	450. 김예은	451. 이금복	452. 이은지	453. 홍선표	448. 권아라	449. 김병식	450. 김수진
451. 송병석	452. 단선화	453. 권아라	454. 김형민	455. 김서연	456. 무명	457. 김세림	458. 정경희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 청평암환우 힐링센터



▲ 건강한 힐링체조



▲ 늘 함께하는 소중한사람들



▲ 뒷뜰에서 해피한 교제나누기



▲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맨발걷기로 건강을~



▲ 블루베리 체험



▲ 싱싱한 야채다듬기



▲ 오키나바 배워봐요



▲ 정상에서의 스트레칭



▲ 즐거운 티타임



▲ 치유의 숲에서~



▲ 치유의 정상에서~



▲ 치유의 햇살 받으며~



▲ 트래킹으로 건강을~



▲ 하나님안에서 한가족

###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황\*진 님(유방암, 간전이) - 9월에 예정된 유방외과 협진을 통해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유방, 림프 간에 있는 암이 성령의 불로 수술 없이 치료되기를,
- 왕\*현 님(폐암 3기) - 식도암 수술 6개월 뒤 검사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져 1년 뒤 방문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예정인 폐암 수술에 대한 결과에서도 암이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 이\*애 님(유방암) - 소화기 입술 후 중보기도로 전통제, 수면제를 완전히 끊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전 약이 내성이 생겨 할라벤으로 바꿨으나, 이 약을 통해 모든 부작용이 사라지고 뱃속과 간에 있는 암세포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기를,
- 서\*자 님(유방암 4기) - 4월8일 부터 항암을 다시 시작했는데, 몸이 잘 회복되어 항암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백내장 수술도 잘 되기를,
- 임\*규 님(복막중피종) - 5월14일 항암제를 바꿔서 현재 항암 진행중이며, 7월22일까지 6차 진행 후, 7월30일 CT촬영, 8월5일 치료결과 확인 예정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 이\*주 님(유방암) - 2월부터 탁술 주사제로 항암중인데, 5월31일 MRI결과 간 부분이 0.2cm 커졌다고 합니다. 일단 같은 주사제로 2회 더 항암 주사제 변경 여부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반드시 고쳐 주시기를,
- 이\*철 님(폐암 4기) - CT 촬영과 MRI 검사 결과 폐와 간과 림프절에 전이된 암이 뼈에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전이가 안되고, 현재 목과, 머리에 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바꾸었는데 진통제가 효과가 있어 통증이 멈출 수 있도록,
- 이\*옥 님(유방암, 흉선암) - 7월9일 진료가 있었고, 7월10일 혈액종양내과 진료 있었습니다. 나의 몸에 최고의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게 하실 줄 믿으며,
- 차\*홍 님(육종암) - 횡경막에 23cm 크기의 암이 하지 대정맥과 간과 심장, 폐, 신장을 누르고 있어서 다리 부종과 황달, 단백뇨 등의 증상이 발생했는데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조 치료만 하고 있지만 증상이 완화되고 치유받기를,
- 구\*주 님(유방암) - 2023년 7월 유방암 진단 후 지금까지 표준치료의 과정을 주님의 은혜와 돌봄으로 잘 지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3년의 표적치료와 앞으로 5년 동안 항호르몬제 복용에도 부작용과 재발, 전이가 없기를,
- 김\*자 님(담도암 재발 자궁경부 질, 직장전이) - CT결과 암이 커지지 않고 활동도 멈춰서 종양수치도 많이 내려갔으며, 암성통증은 많이 줄었는데 요산스텐트가 계속 자극을 하면서 통증으로 인해 활동이 불편한데 잘 이겨 낼 수 있기를,
- 장\*미 님(유방암, 다발성 폐전이) - 항암제를 바꾸고 6차까지 진행했으며, 투약후 종양수치가 많이 떨어져지고 통증도 줄었으나 항암 부작용으로 폐렴이 생겨 항암을 중단하고 폐렴치료를 했으며 CT결과 아직 염증이 남아 있는데 약으로 내성 없이 암세포가 다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 김\*식 님(혜장암, 전립선암) - 7월15일 23차 항암입니다. 전립선암은 현재 항암제가 몸에 잘 맞지 3개월간 진행중이며, 사멸되는 기적이 있기를,
- 김\*진 님(유방암, 림프전이) - 7월 12일까지의 방사선 치료를 통해 암들이 사멸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되게 해주시고, 항 호르몬제 부작용이 최소화 되고 잘 견디며, 체력이 생겨서 항암치료를 잘 받고, 배변활동이 정상이 되도록,
- 최\*순 님(갑상선 수술암) - 쇄골쪽과 등쪽으로 견딜만큼의 통증이 간헐적으로 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 배\*경 님(폐암4기) - 재발 후 표적항암제 쓰다가 내성이 생겨 암 종들의 개수와 크기가 늘어 7월1일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하였으며, 독성항암과 3세대 표적항암제 중 어떤 것을 쓸지 7월29일 진료 때 결정하는데 좋은 결정이 있기를,
- 이\*형 님(폐암4기) - 비장과 골반 전이로 임상중에 있으며, 매일 2알씩 먹는 항암제와 2주에 한 번 맞는 주사제의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며, 손발톱 짓무름, 피부발진, 혈변, 손발마비, 구내염등의 항암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까지도 관여하여 주시기를,
- 서\*순 님(유방암) - 유방암 4기로 폐, 왼쪽 눈, 뇌로 전이된 상태이고 엔허투로 항암을 하고 있지만 내성이 생기지 않고 이 약을 통해 암이 완전히 사멸되기를,
- 황\*산 님(대장암, 간, 폐, 복막전이) - 표적치료제(스테바타)로 바뀌서 항암제를 복용하는데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에 감사드리며, 7월11일 CT 촬영을 하였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 곽\*정 님(난소암) - PET CT결과 골반쪽에 이상한 흔적이 있는데 암이 아닐지 기도하며, 이로 인해 여성질환과 수면부족 등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이지만 호전되게 하시고 염증이 없어지고, 항암약제(제라)복용중인데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 류\*숙 님(폐암4기) - 지금의 임상 신약이 제게 주신 보탬이 되게 해 주시기를,
- 오\*석 님(간암) - CT촬영결과 크기가 애플바타로 봐서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크기가 작아지고 활성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기를,
- 박\*자 님(신우암, 폐전이) - 유전자에 맞는 항암 약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의 신자의 피로 치유 되어지기를,
- 박\*숙 님(방광암) - 오한, 통증이 사라지고 오른쪽 다리 부종도 정상이 되며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몸의 암과 염증도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 하\*애 님(유방암 다발성 폐전이) - 6월12일 검사 결과 현재 약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항암제가 부작용과 통증 없이 효과가 있기를,
- 곽\*연 님(직장암 간전이) -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으로 혈액순환이 안되어 손발저림과 수족냉증, 부종, 등으로 매우 힘듭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 류\*문 님(비강암) - 폐 전이 후 항암을 하였으나 내성이 생겨 7차 항암부터는 새로운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치유와 증가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를,
- 이\*희 님(유방암) - 항암약이 듣지 않아 항암약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주님, 끝까지 지켜 주옵시고 부작용도 최소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중보자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 환우들이 독수리 날개 치트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삶의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울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건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 서울역 이야기

###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었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아직도 차가운 겨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의 이웃에게 오늘도 소중한 밥 한그릇, 시원한 음료 한잔 정성껏 대접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접해 드리는 밥만으로는 그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노숙인분들께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드리며 전도지를 건네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 소중한사람들 교회



▲ 강동온누리교회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모래내교회



▲ 벨엘교회



▲ 별무리대안학교



▲ 분당삼성교회



▲ 서빙고온누리교회



▲ 에클레시아



▲ 이화유치원성경반



▲ 조이어스교회



▲ 학부모성경통독팀



▲ 학부모성경통독팀

###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1시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0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20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7월 15일 초복 때는 노숙인 한 사람에 삼계탕 한 마리씩을 나눴습니다. 서로 좋아하며 즐거워 했습니다.

6월 에는 1일, 분당삼성교회 4일과 11일과 18일과 25일 이대 부속 초등학교 학부모 성경통독팀 8일 에클레시아 11일 조이어스 교회 13일 벨엘교회 15일 함께 올래 1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20일 이화 유치원 학부모 성경 통독반 21일 별무리 대안학교 22일 모래내교회 28일 강동 온누리교회 29일 중현교회 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권경희, 고순미, 김성수, 김현숙, 김진숙, 김현옥, 김영옥, 박진희, 송경옥, 이영훈, 이소영, 이우영, 이은영, 유정숙, 정의영, 정차연, 정경화, 최선희, 최경희, 최금련, 한현희, 황귀용, 한에스터, 김용수, 강명석, 송기승, 허청만, 이정민, 이지영, 한송희, 임맹자,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진승연, 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주희, 김명옥, 송기승, 채정주, 강명석)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주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종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유정옥 주일 이성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매일 오전 11시 예배와 점심 나눔



▲ 간식나눔



▲ 간식세트나눔



▲ 선한목자병원진료



▲ 헬스바미용봉사

## 6월 노숙인들에게 나눔

\*6월 15일 (토요일) 18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 29일 (토요일) 12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으로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6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수량	재고
6/3	푸드뱅크	빵	5박스	6/4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3박스	2박스
				6/5			2박스	0박스
6/7	푸드뱅크	빵/부식류떡	4/1/1박스	6/8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2/1/1박스	2/0/0박스
				6/9			2/0/0박스	0/0/0박스
6/8	에클레시아	바나나	2박스	6/8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2박스	0박스
6/10	푸드뱅크	빵	5박스	6/11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3박스	2박스
				6/12			2박스	0박스
6/14	푸드뱅크	빵/부식류떡	3/1/1박스	6/15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3/1/1박스	0/0/0박스
6/18	학부모성경통독팀	간식	120세트	6/18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120세트	0세트
6/17	푸드뱅크	빵	3박스	6/18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3박스	0박스
6/21	푸드뱅크	빵	2박스	6/22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2박스	0박스
6/24	푸드뱅크	빵/부식류떡	3/1/1박스	6/25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3/1/1박스	0/0/0박스
6/28	푸드뱅크	빵	3박스	6/29	간식나눔	거리노숙인	3박스	0박스
6/29	사랑의쌀나눔기운동본부	쌀 20KG	1포	6/30	무료급식	거리노숙인	1포	0포



▲ 간식-학부모성경통독팀



▲ 바나나-에클레시아



▲ 빵,부식-푸드뱅크



▲ 쌀-사랑의쌀나눔기운동본부



▲ 쌀-사랑의쌀나눔기운동본부



▲ 하나프라이미 - 소고기

# 생애 · 치유 · 봉사

##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7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7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일 셋째 토요일 12시부터 진료가 있다.



## 중보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15회가 되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 중보기도 제목

#### 1. 소중한사람들 사역

- 1) 남성 쉼터 생활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위,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 2.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바,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 4. 아이티 사역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 5. 치유

- 신형진, 최유운, 김정신, 김진수, 이엘리, 황우진, 김연자, 황순산, 장은미, 김병식, 박호정, 왕규현, 이경애, 서금자, 임동규, 김수진, 권아라, 류지숙, 오홍석, 유허희, 이윤주, 박춘자, 박정숙, 최승순, 허미애, 배운경, 이해형, 이돈철, 서미선, 박수연, 이해옥, 차재홍, 류성문, 이재희, 구현주, 입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 6. 박호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래, 김현중, 최은희, 이해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으셨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7. 신형진님이 9차까지 맞은 스피라자 주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차 이후 주사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피라자 주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신형진이 다시 스피라자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8. 앤드류 서 구명을 위해

19살에 폰티악 감옥소에 들어가 50세가 되어 출감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앤드류 서는 80년을 옥중생활을 해야 하는데 30년을 모범수로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모범수여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앤드류 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감한 것입니다. 앤드류 서의 집과 생필품과 직장과 옆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여자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 아이티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무법천지로 변했다. 무장 경단의 폭동으로 경찰서와 은행이 불타고 도시에 총탄이 난무하면서 지금까지 수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곳곳에 시신이 굴러다니고 약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 나라엔 현재 대통령이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마저 전격 사퇴했다. 국회도 없다.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서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17일 워싱턴포스트 등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이들 들어 경단은 교도소 2곳을 습격해 수천 명의 범죄자를 탈옥시켰다. 국제 공항과 항구, 최소 12곳의 경찰서를 습격했다. 다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힘겹게 병원으로 옮겨가는가 하면 불에 탄 차들과 타이어, 부서진 건물 잔해가 거리에 널려 있다. 하지만 폭동을 막을 경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국민을 도와야 할 공무원도 보이지 않는다. 올해 1월 선출직 공무원 임기가 만료돼 국회의원도 없는 실정이다. 유엔은 부상당한 환자를 치료할 인력과 장비, 병상,약품, 혈액 부족으로 보건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혼란을 틈타 무장 경단이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아리엘 앙리 총리 퇴진을 요구해 왔다. 앙리 총리는 지난달 7일까지 사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말 이를 번복하고 케냐로 출국했다. 케냐에 병력 파견을 요청하러 간 것이다. 아이티 사회는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하실지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다. 재배마을에 이어 귀통마을에 이어진 초등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후원을 바랍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 미얀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쯩갈레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젠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단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심년이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져서 수많은 미얀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장맛비가 끝도 없이 내려 농작물을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비가 오니 밭에 나가 본다면 농부들이 불어 난 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슬픔은 걷고 밝고 즐거운 나날입니다.

6월에 미국 뉴저지에서 목적 헌금을 보내주신 조은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를 보내주신

김용수 송연숙, 김영진 손미나, 이성웅 이한나, 유진상 황귀용, 정종대 진승연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덕희, 고무원, 구명신, 김가람, 김영림, 김영선, 김태희, 김현진, 나은선, 노아, 도문식, 류지숙, 문영숙, 박정욱, 박철규, 박혜수, 성찬영, 송정기, 송희종, 신현정, 신형진, 엄춘란, 유광현, 유영재, 유정욱, 윤원석, 이고은, 이은주, 이주희, 임나리, 임맹자, 임운엽, 장지호, 정경희, 정영남, 정일권, 최진옥 님께 감사드립니다.

기관, 단체 헌금을 보내주신 (사)은누리약국 복지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신 (기갑)안양감리교회, (예정) 경주제일교회, 영락교회, 베이직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헌금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명수, 신현우, 주영훈, 이성웅 이한나, 박금용, 유진상 황귀용, 이정대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조경숙, 한종석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섬김 헌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심터 생활인들은 취직을 하여 직장을 얻고 저축을 하며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력무력 자라고 있습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피라자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신형진, 최유운, 김정신, 김진수, 이엘리, 황우진, 김연자, 황순산, 장은미, 김병식, 박효정, 왕규현, 이경애, 서금자, 임동규, 김수진, 권아라, 류지숙, 오홍석, 유정희, 이윤주, 박춘자, 박정숙, 최승순, 하미애, 배윤경, 이해형, 이돈철, 서미순, 박수연, 이해옥, 차재홍, 류성문, 이재희, 구현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효정, 이제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숙,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춘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산,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춘기, 최영자, 이경숙,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설님이 암에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년을 한결같이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한사람들 유정욱 드림

# 2024년 06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2024년 06월 01일 ~ 06월 30일까지)

## ●십일조 헌금●

강덕희(30,000)	고무원(200,000)	구명신(200,000)	김가람(430,000)	김영림(100,000)	김영선(50,000)
김영진,손미나(1,700,000)	김용수,송연숙(350,000)	김태희(150,000)	김현진(250,000)	나은선(300,000)	노아(1,000,000)
도문식(500,000)	류지숙(1,250,000)	문영숙(200,000)	박정욱(200,000)	박철규(300,000)	박혜수(500,000)
성한영(730,000)	송정기,송경옥(450,000)	송희종(500,000)	신현정(350,000)	신형진(450,000)	엄춘란(1,260,000)
유광현(430,000)	유영재(350,000)	유정옥(250,000)	유진상,황귀용(2,200,000)	윤원석(200,000)	이고은(550,000)
이성웅,이하나(350,000)	이은주(1,130,000)	이주희(470,000)	임나리(600,000)	임맹자(1,820,000)	임윤엽(180,000)
장지호(50,000)	정경희(200,000)	정영남(100,000)	정일권(180,000)	정종대,진승현(500,000)	최진욱(200,000)

## ●개인 감사헌금●

강덕희(50,000)	강성희(45,000)	강윤옥(10,000)	고유미(300,000)	관정연(100,000)	급식후원(10,000)
김갑희(90,000)	김경숙(20,000)	김경식(10,000)	김남이(50,000)	김대식(20,000)	김도영(20,000)
김동민(10,000)	김명옥(100,000)	김미선(50,000)	김미정(20,000)	김선아(100,000)	김선희(100,000)
김성희(30,000)	김영림(10,000)	김영미(50,000)	김영선(10,000)	김옥성(100,000)	김정훈(10,000)
김종명(100,000)	김진환(100,000)	김태세(50,000)	김태희(100,000)	김하영(100,000)	김행심(10,000)
김현서(20,000)	김희정(50,000)	나종숙(60,000)	노숙자후원(30,000)	노원균(30,000)	류한금(10,000)
박금용(200,000)	박대수(15,000)	박동준(10,000)	박문희(50,000)	박봉희(50,000)	박선주(100,000)
박세준(50,000)	박영일(100,000)	박인혜(50,000)	박정애(30,000)	박정환(20,000)	배윤희(10,000)
배희영(10,000)	백주현(40,000)	변경자(20,000)	석동신(40,000)	성명숙,이경민(50,000)	소진경(30,000)
송계순(30,000)	송기승(130,000)	신명순(50,000)	심요엘(10,000)	안형옥(100,000)	양복길(13,000)
연규흠(100,000)	오경남(20,000)	오선향(100,000)	오선희(50,000)	오지석(100,000)	유재학(120,000)
유정숙(200,000)	유정옥(10,000)	유진상,황귀용(200,000)	윤재운(20,000)	윤화(30,000)	이기형(40,000)
이미일(160,000)	이상훈(10,000)	이선아(100,000)	이성웅,이하나(600,000)	이성혜(5,000)	이연옥(10,000)
이영숙(20,000)	이용섭(50,000)	이용남(30,000)	이원옥(100,000)	이윤아(30,000)	이윤정(100,000)
이은정(100,000)	이인영(50,000)	이재성(50,000)	이재옥(100,000)	이정대(180,000)	이정선(100,000)
이주희(140,000)	이지은(10,000)	이태희(50,000)	이하나(50,000)	이황희(50,000)	임맹자(100,000)
장란숙(100,000)	장종숙(90,000)	전혜영(10,000)	정도옥(100,000)	정영애(20,000)	정유진(100,000)
정윤(30,000)	정은수(20,000)	정주연(50,000)	정태현(10,000)	조성애(50,000)	조영미(30,000)
조을남(10,000)	조진영(50,000)	주님은혜(30,000)	최성은(10,000)	최지임(100,000)	최진복(20,000)
하나님감사합니다(440,000)	하영숙(20,000)	한경숙(10,000)	한기려(20,000)	한보성(100,000)	
한송희(100,000)	한에스더(100,000)	한창현(30,000)	홍복실(100,000)		

## ●교회 감사헌금●

(기감)벤델교회(100,000) (기감)선재중앙교회(100,000) (기감)선한목자교회(100,000) (기감)안양감리교회(200,000) (기성)식도성결교회(50,000)  
 (기성)아현성결교회(100,000) (예성)강동은누리교회(70,000) (예장)경주제일교회(200,000) (예장)문호교회(100,000) (예장)영락교회(300,000)  
 (예장)하나로교회(100,000) 베이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예봉교회(10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 ●기관 감사헌금●

(사)은누리약국복지회(300,000) 마라나타(30,000) 사랑의센터(50,000) 엔씨마수학학원(100,000) (주)컨피테크(100,000)

## ●미얀마교아 선교헌금●

글로벌비즈니스(40,000)	곽상미(40,000)	김명자(10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천성(40,000)	안성훈,송명옥(40,000)	윤혜경(40,000)	이성자(40,000)
이성자(40,000)	이현희(10,000)	이혜란(40,000)	정영애(40,000)	조갑동(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 ●중국교아 선교헌금●

박선주(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조춘식(40,000)	서보람(70,000)
-------------	-------------	-------------	-------------	-------------

## ●멕시코교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	-------------	-------------

## ●북한교아 선교헌금●

글로벌비즈니스(40,000)	강일화(40,000)	강현미(40,000)	권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미원(40,000)
김소명(5,000)	박승호(50,000)	석영란(2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복자(100,000)	이순주(20,000)	이혜란(40,000)	정미주(40,000)	한상준(10,000)	함수아(40,000)
황주영(15,000)					

## ●북한선교 헌금●

(주)엔피이브(50,000)	김광훈,김미영(50,000)	김지혜(30,000)	남기국(10,000)	박혜영(30,000)	신경자(100,000)
이은혜(50,000)	이항자(50,000)	이혜란(50,000)	장승아(50,000)	장은별(50,000)	전해봉(20,000)
정유진(30,000)	지선옥(20,000)				

## ●베트남선교 헌금●

강면구(40,000)	박진희(40,000)
-------------	-------------

## ●아이티교아 선교헌금●

(사)은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은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은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은누리약국(박종화)(40,000)		
(사)은누리약국(박종화)(40,000)	갓피플웨딩(40,000)	갓피플웨딩(40,000)	강인순(40,000)	고순미(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손향(40,000)	김상진,손향(40,000)	노윤정(40,000)	박선인(40,000)	박선주(40,000)	새산성교회(40,000)
손향(40,000)	송현주(40,000)	송현주(40,000)	안서영(40,000)	윤혜경(40,000)	이재혁(40,000)
이찬의(40,000)	이혜란(40,000)	장요셉,손향(40,000)	장정문(40,000)	조경희(40,000)	조정숙(40,000)
채신혜(30,000)	최춘호(80,000)	하성화(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서양종교사상(50,000)		홍정희(40,000)
홍정희(40,000)					

## ●아이티 선교헌금●

김현진(250,000)	무명(300,000)	박영미(35,000)	박종래,최임선(20,000)
박혜진(10,000)	성한영(50,000)	이윤(5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최춘호(30,000)	한종석(200,000)



(주)엔에이브(50,000)	(주)창세에스엔티(50,000)	갯피플웨딩(50,000)	강금내(30,000)	강도숙(10,000)	강면구(20,000)	강명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전혁(10,000)	강현미(20,000)
강화란(10,000)	계영산업(50,000)	고건화(10,000)	고남균(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유미(10,000)	권정아(10,000)
권혁천(10,000)	글로벌비즈니스(50,000)	갈상임(10,000)	김경리(10,000)	김경미(2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형(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균(50,000)	김동만(50,000)	김동영(10,000)	김라함(30,000)
김명수(300,000)	김명순(1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미화(10,000)	김민경(30,000)
김민자(20,000)	김번옥(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보연(30,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명(10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성하(5,000)
김소라(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10,000)	김수경(20,000)	김수경(1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수현(30,000)	김숙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승훈(30,000)	김연옥(10,000)	김영상(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숙(10,000)	김영순(10,000)	김영옥(20,000)	김영인(1,000)	김영주(30,000)	김오례(10,000)
김옥겸(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정(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의환(5,000)	김인자(100,000)	김인자(50,000)	김인주(50,000)	김일형(20,000)	김재정(80,000)	김정숙(10,000)
김정화(2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애(20,000)	김지아(10,000)	김지은(20,000)	김지현(3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춘희(5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향숙(10,000)	김향순(5,000)	김현미(10,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숙(5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화련(50,000)	김효정(20,000)
김효진강철민(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열(10,000)	나지용(5,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한준(30,000)	노현자(20,000)	도문식(30,000)	라미영(5,000)	로그스터디(20,000)	류명순(5,000)	류승한(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화(10,000)	박경희(10,000)	박관택(30,000)	박다은(5,000)
박명희(10,000)	박문희(2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봉선(10,000)	박상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서준(100,000)	박성영(3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속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연정(10,000)	박영자(2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원,차은미(10,000)	박진철(10,000)	박찬국(3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혜정(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규진(20,000)	백창미(5,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요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사재신(20,000)	서상숙(20,000)	서정국(50,000)
서지연(10,000)	서혜원(20,000)	석영란(10,000)	석진혁(30,000)	성기빈(40,000)	성남시청신우회(3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석원(2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진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상신(1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송하정(10,000)	신승우(50,000)
신용순(10,000)	신은미(30,000)	신은미(3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영경(30,000)	심정섭(30,000)
씨엘지코리아(10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훈숙(10,000)	안희영(10,000)	양미란(5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영훈(5,000)	양의문교회(30,000)	양재희(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염영태(5,000)	예수사랑교회(30,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민아(10,000)	유복희(10,000)	유부자(10,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소연(30,000)	유소연(3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정모(20,000)	유준서(5,000)	유현숙(10,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윤예준(10,000)
윤완(10,000)	윤용석(10,000)	윤인초(10,000)	윤정민(5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홍찬(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선(10,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진(10,000)	이경화(30,000)
이공이(100,000)	이귀남(30,000)	이금복(10,000)	이기례(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1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미경(10,000)	이미옥(3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100,000)	이삼중(5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성준(10,000)	이소영(3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승재(10,000)	이애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미(30,000)	이영석(100,000)	이예원(1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유진(30,000)	이윤미(1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은혜(50,000)	이의신(10,000)	이의화(10,000)	이인용(20,000)	이재룡,박안순(1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란(10,000)	이정민(1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10,000)	이종수(40,000)
이주아(20,000)	이준욱(110,000)	이지원(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찬익(5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10,000)	이현희(20,000)	이현희(1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홍중(3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경희(2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수연(10,000)	임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진옥(3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문심(10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승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애영(20,000)	전영선(10,000)	전재국(10,000)	전해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영호(30,000)	정우찬(30,000)	정유나(50,000)	정유정(20,000)	정윤경(10,000)	정윤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ர량(10,000)	정인철(50,000)	정재겸(5,000)	정재이(5,000)	정진숙(10,000)	정해자(10,000)
정해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미숙(10,000)	조미영(100,000)	조새롬(10,000)
조성림(10,000)	조성완(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현미(1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주찬양교회(5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진미제(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송화(1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의(10,000)	최경선(10,000)	최귀영(10,000)	최금련(30,000)	최민형(10,000)	최민홍(10,000)	최상해(10,000)
최영숙(3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윤구(2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희(100,000)	최정순(5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10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당기(50,000)	한미운(30,000)	한지영(5,000)	한진현(1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미(10,000)	허상익(30,000)	허인애(30,000)	홍성경(30,000)	홍순경(20,000)	홍신숙(100,000)	홍영희(5,000)	홍유희(20,000)
홍재필(20,000)	홍정희(20,000)	홍주연(2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황희찬(20,000)						

#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01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길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 소중한사람들에 헌금을 보내시려면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http://www.ppp.or.kr)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RX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헌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0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헌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 02-365-9104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암 환우 힐링센터 <b>해외고아 1:1 결연(4만원)</b> <input type="checkbox"/> 미얀마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한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http://www.ppp.or.kr)

**미국** [Precious People] 41 E. Prospect Ave. Mt. Vernon, NY 10550 U.S.A.

**아이티** DELMA 75, PORT-AU-PRINCE, HAITI TEL 509-3655-7153

**멕시코** Lote 4 Man Zana 7 s/n nacionalistade Sanchez Tabada la Meza Ensenada, B.C cp22790 TEL 521-646-947-9250

**미얀마** No724/D. No(41) B.E.P.S Lane, Lower Mingalardom Road. Sintngu @TR. Insein Tounship yangon. Myanmar.  
TEL 951-645858, 959-73086721

중  
국  
복  
한